북리뷰 : 책을 읽는 사람들

책이 가득하고 책읽는 사람들이 북적대는 도서관에서 늘 책과 함께 살고 있는 우리 도서관인들은 과연 얼마나 책을 읽을까? 항상 책과 함께 하기에 혹시 읽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에 젖어 사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일에 지쳐, 시간에 쫓겨 마음은 있으면서도 책읽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아닐까? 물론 도서관인들은 늘 책을 읽고 그 책들과 대화를 하며 가장 적절한 이용자에게 책을 전해주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끔은 나 자신을 위해 책읽는 시간을 할애하면 어떨까? 도서관인으로, 한 사람의 일반인의 자격으로 자신을 위한 책읽기의 시간을 나누기 위해 이번 호부터 이 지면을 신설하였다. ■ 편집자 주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에 대한 이야기

"멍청한 사람, 얼간이 시장! - 당신들은 낱말이 돈보다 더 힘이 있다는 걸 모르는군! 책은 은행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저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천 오백년전 고대 그리스 정치가가

게리 헐 지음, 윤태영 옮김, 말리 모아 그림.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 서울 : 새터. 2000. 93p. 6,500원
ISBN89-87175-37-5.

한 말을 전한다. "우리가 동전을 잃어버린다 해도 가난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큰 도서관에 있는 지식과 지혜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 도서관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물이다." 이 그리스 정치가가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고, 언제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다고 하자 시장은 갑작스럽게 외친다.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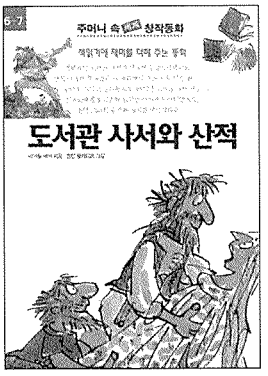
표라는 말에 갑작스럽게 시장은 도서관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주인공인 산제비가 도서관에 돈을 쓰는 쪽이 항상 선거에서 이겼다는 점을 시장에게 거듭 확인시켜 주자 시장은 도서관을 표밭으로 인식하고는 도서관에 투자를 결정한다. 그럼으로써 사라질 뻔한 도서관은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이야기는 게리 헐이 지은 책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다. 작은 산제비 한 마리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진 힘 있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부터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인 도서관을 지키게 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요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도서관을 돌아보게 만든다. 또한 늘 우리가 부러워하고 비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일들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이래저래 생각의 끈을 이어가게 한다.

이 책은 등장인물들은 '마을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 어디인가를 두고 논쟁을 벌인다. 시청이다, 은행이다, 소방서다... 그러나 정작 그들(사람이 아니다. 작은 새들, 고양이, 개들이다)은 도서관에서 수많은 책들을 만나게 되고 그 책들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발견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발견한다. 그러나 도서관은 곧 작아지고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운명. 그래서 사람이 아닌 동물들이 도서관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회원으로 등록하고 책들을 빌려 간다. 그리고 시 당국자들에게는 도서관이 마을의 핵심이며 도서관에 투자하는 것이 확실하게 '표'라는 사실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게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책 처음에 이 책을 자기 마을의 가장 소중한 곳에서 일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바친다고 적고 있다. 이러한 지지와 도움이 우리에게도 늘 절실하다. 우리는 이런 동지를 얻고 있는가? 어떤 현실이든 그것은 그 현실의 범주에 속한 사람들 개개인의 삶의 집합일 뿐이다.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인 도서관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 소중함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온갖 생각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우리의 답답한 현실의 벽들은 사라지고 지혜의 정원에 우뚝 서서 행복한 만남의 복판에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짧은 동화 한 편이 그러한 현실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내친 김에 또 다른 동화책을 읽어본다. 이 책의 제목은 『도서관 사서와 산적』이다. 도서관 사서! 늘 마음을



마거릿 메이 지음, 켄틴 블레이크 그림, 박은정 옮김. 『도서관 사서와 산적』. 서울 : 웅진출판(주). 1997. ISBN 89-01-02215-X

설레게 하는 말이다. 그런데 왜 산적이 나오지?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매력적인 사서인 엘렌느가 심술궂은 산적에게 납치된다. 여기서부터 이 책은 끊임없는 질문을 하게 한다. 산적은 왜 사서를 납치한 거야? 매력적인 여자라서? 부자라서? 엘렌느는 집도 없어서 도서관에서 살고 있는 사서일 뿐이다. 산적도 이것을 안다. 그럼 왜? 산적은 '사서가 없으면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시의회가 몸값을 두둑이 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서를 납치한 것이다. 도서관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가 사서 몸값을 낼 것이다? 실제로 시의회는 이 문제로 회의를 한다. 그 사이 마침 홍역을 앓고 있던 사서로 산적들은 홍역에 걸린다. 이 때 사서는 도서관에서 〈가정 의학 사전〉을 가져올 수 있게 해 준다면 산적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산적두목을 설득한다. 결국 사서는 도서관으로 돌아가 책을 가지고 산적들에게 돌아가 홍역을 앓고 있는 산적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한다. 평생 책을 접해보지 못했던 산적들은 책에 푹 빠지게 되고 책에 욕심을 낸다. 그래서 책을 훔치려고 하지만 사서는 또 당당하게 이렇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에 와서 이 책을 보고 가요. 두목님도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땐 언제든지 이 책을 빌려 볼 수 있어요."

홍역이 낳자 산적은 엘렌느를 도서관으로 돌려보낸다. 그리고 3주일 후 사고를 친 산적두목이 경찰을 피해 도서관으로 도망을 온 사건이 벌어진다. 사서는 산적두목을 도서관 장서로 등록을 해 버린다. 뒤따라온 경찰관이 산적두목을 잡아가려고 하자 사서는 상냥하게 말한다. "물론 데려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이 도서관의 재산이에요. 독서 카드가 있어야 데려갈 수 있어요!" 마침 독서 카드를 집에 두고 온 경찰관이 사정을 했지만 사서는 결코 산적두목을 빌려주지 않는다. 경찰관이 집에 다녀오는 사이 산적두목은 부하들이 그토록 원하는 책들을 빌려서 산으로 돌아간다. 물론 산적두목은 사서가 장기대출을 했다. 산적두목도 도서관 회원이 되고. 이후 산적들 모두는 어떤 계기를 통해 산적생활을 청산하고 도서관 사서(보조사서겠지?)가 되어서 도서관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산적이었던 사서들이 매일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콩트와 연극도 공연하는 도서관을 만들어 어린이들의 천국을 만든다. 그리고 '조용히 하세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안내판도 떼어낸다. 도서관은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즐거움과 행복한 만남과 대화의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 또한 외국책을 번역한 것이다. 이러한 동화책을 만들어 내는 그 사회의 깊이와 도서관에 대한 폭넓은 지지기반이 부러울 뿐이다. 두 권의 동화책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도서관을 통해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즉 도서관에서 책을 읽음으로써 이전의 무지에서 벗어나 주체적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이다. 즉 도서관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가능성이고 그래서 도서관은 그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되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는 도서관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늘 열린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서가 있다. 이 사서들은 도서관 자체가 아니라 도서관의 책과 이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사람으로만 그려지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무지는 가난과 두려움의 근원이다. 따라서 인류는 무지를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문자, 종이, 인쇄술 등의 발명으로 인류는 드디어(?) 무지를 벗어나 지식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일관된 발전과정에 도서관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관의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잊는다. 우리가 읽은 동화책들은 그래도 도서관이라고 하는 기본전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미와 함께 우리같은 도서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안기는 것이리라.